

출장보고서

I. 출장개요

1. 출장자: 박철형 전문연구원
2. 출장기간: 2010-11-29 ~ 2010-12-04
3. 출장지: 이집트 카이로
4. 출장목적: 제7차 한-중동 협력포럼 참가 및 지정토론

II. 출장일정

일자	행선지	활동사항	비고
11.29(월)	두바이 국제공항	인천 국제공항 출발	
11.30(화)	카이로	환영 리셉션	콘래드호텔
12.01(수)	카이로	한-중동 포럼	콘래드호텔
12.02(목)	룩소	룩소지역 시찰	
12.03(금)	두바이 국제공항	카이로 국제공항 출발	
12.04(토)	두바이 경유 및 인천 도착	인천 국제공항 도착	

III. 활동 내용

- 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협력전략센터와 이집트 아흐람 정치·전략연구소(Al-Ahram Center for Political & Strategic Studies)가 공동주최하고 외교통상부가 후원한 제7차 한-중동 협력포럼에 참석
 - 한-중동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국가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교류 프로그램으로 금번 제7차 한-중동 협력포럼은 ‘21세기 한-중동 파트너십 강화’를 주제로 정치·안보, 경제, 사회문화 섹션으로 구성·진행됨.
- 출장자는 2세션 경제분과 지정토론자로 참여
- ☐ 1세션 정치·안보
 - 이신화교수(고려대): “Security Dynamics of Northeast Asia: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Perspectives”
 - 전통적 안보인식 측면에서 일제 식민지배 시기부터의 유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 중-러-한국-미국 등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여전히 상존
 - 비전통적 안보문제: 9.11로 촉발된 초국경적 테러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한 다자협력 필요성 증대
 - Dr. Kadry Saeed(Former General, ACPSS): “Security Challenges in the Middle East”
 - 중동지역 안보환경의 특성은 공간(지리), 사람(민족), 시간(역

사)의 경계와 분쟁, 주요행위자 등에 따라 평가됨.

- 중동지역은 정치적 개방성 및 경제 자유화가 확산되고 있으며, 식량, 물 등의 문제에 취약함.
- 주요 안보위협으로 이스라엘-팔레스타인문제, 지중해 해군문제(밀수,해적,인신매매), 초국경적 문제(테러),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이 있음.
- EU, 미국, NATO 등 외부세력이 중동 안보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에도 중동 내부에서 안보문제를 다룰 기구가 없음. 따라서 역내 협력레짐이 필요

□ 2세션 경제

- 정인교교수(인하대): “Global Economic Outlook after G-20 Summit in Seoul”
- G20 개최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설명
- 환율문제 가이드라인 도출 및 국제거버넌스 기초 마련
- G20 비즈니스 포럼 진행
- 비G20 국가들을 위한 의제 발의
- Prof. Abdallah Shehata(Cairo University): “Prospect of Arab Economy after the World Financial Crisis”

- 아랍국가들은 글로벌경제와 어느정도 괴리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받음.
- 다수 걸프지역 산유국들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, 특히 UAE는 -2.3%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함.
- 비산유국들 역시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 감소와 외국인투자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됨.
- 금융 위기를 극복을 위해 통화량 확대, 인프라 투자, 5개년 개발계획 등을 추진
- 이내영교수(고려대): “Korea’s Experience of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”
- 민주화(↔독재)와 경제발전의 관계에 있어 한국은 드물게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를 일궈낸 나라임.
- 한국은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 대통령의 리더십, 능력있는 관료, 강한 교육열,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 및 안전보장, 자유무역에 유리한 국제환경 등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토대 마련
- 농업경제에서 산업화와 급격한 도시화, 중산층의 증가 등을 경험하며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절정에 달함.
- 1990년 이후 관(官)이 아닌 민(民)이 주도하는 경제 발전이 이뤄짐.
- 장현식 이사(KOICA): “Korea’s Global Contributions: ODA”

- 한국의 발전경험과 공유는 개도국의 주요 관심사임.
 - 한국 경제발전의 핵심요인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있음.
 - 한국의 개발경험을 프로그램화하여 각국의 현지 실정에 맞게 변형·적용하는 것이 성공적 ODA의 핵심임.
 - KOICA는 한국의 전문가들을 각국에 파견하여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ODA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였음.
 - 한국은 개발경험 전수에 대해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, 이러한 사업들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함.
- 주운표박사(KINS): “Experience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in Korea”
-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고리 1호 원자로 개발 이후 큰 발전을 이룸.
 - 성공적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의 진전이 필요함.
 - 규제시스템의 개선 및 선진 규제제도 도입,
 - 규제기관의 효율적 관리
 - 규제기술표준의 개량 및 글로벌 안전표준 도입

- 출장자는 경제세션 지정토론자로 참여
- 한-중동 동반성장을 위해 양자간 비교우위를 활용한 협력을 강조(중동의 인적·에너지자원 및 자본과 한국의 기술, 경제발전 경험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창출)
 - 인적자원 개발과 산업육성, 정부역량 강화를 양자간 3대 협력 목표로 삼고 과학교육·직업훈련, 연구개발교류, 중소기업육성, 자원·인프라개발, 서비스시장(교육·의료·금융), 경제계획·산업정책, 전자정부프로그램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위한 협력센터 설립, 협력기금 조성, FTA 체결 등 제도적 기반구축의 필요성 강조
- 룩소지역 시찰(KOICA 사업장 방문)
- KOICA(한국국제협력단)가 지원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사업장인 룩소중등기술학교를 방문
- 룩소중등기술학교는 현지 직업훈련교육기관으로 자동차, 컴퓨터, 기계 및 선반 분야 기술인력을 양성
- KOICA는 시설지원뿐만 아니라 인력파견을 통해 현지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음.
- 기술교육은 우리나라 직업훈련분야 특성화대학인 한국기술대학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를 통한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.

- 현지 KOICA 사업은 자동차·기계 관련 인력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룡소지역 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